

“귀농은 꿈 아닌 현실… 농업기술 전문성 갖춰야”

전남 귀농산어촌인을 만나다 <4·끝> 곡성군 '곡성 와사비' 양수정 대표

평생을 대전에서 살다가 10년 전인 지난 2015년 명예퇴직한 남편의 권유로 곡성으로 귀농을 선택한 양수정(55) '곡성 와사비' 대표는 “귀농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했다.

‘섬진강 줄기의 아름다운 압록과 자연에 반해 곡성으로의 귀농을 결정하게 됐다’는 양 대표의 첫 농사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였다.

양 대표는 “귀촌 초기, 학생이었던 막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새 직장에 취직한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가족들이 먹을 농산물을 직접 키워보자는 마음으로 농산물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

양 대표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농사에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됐다. 하지만 ‘농사를 더 잘 짓고 싶다’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던 그는 귀농귀촌협회를 찾아 농사를 배울 수 있는 멘토들로부터 다양한 농업기술을 습득하는데 매진했다.

이후에는 더 나아가 곡성 농업기술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격적인 재배 기술 전수 및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정보화농업인을 통해 농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등 전문성 확립에도 나서며 진정한 ‘귀농인’으로 변모했다.

양 대표는 “소규모로 시작해 지인들과 작물을 나눠 먹는데 만족했으나, 이후 농사일에 점점 자신감이 붙게 됐고, 본격적인 와사비 공부를 하며 ‘곡성 와사비’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며 “올해 본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곡성 와사비의 인지도를 높이고 곡성과 와사비 장아찌와 김치를 출시하는 등 부가가치 향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그는 물재배(근경재배) 하우스 4동, 잎재배(토경재배) 하우스 6동 운영과 더불어 곡성 와사비 홍보를 위해 ‘맛다곡성 협동조합’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

풍부한 비타민C가 함유된 와사비는 매운맛과 살균효과를 가진 아이소싸이오시아네이트(Isothiocyanate) 성분이 있는 저온성 작물로, 새로운 곡성의 신소득 작목으로 육성되고 있다.



장아찌·김치 출시로 부가가치 향상 “실질적 집합 교육 작물 재배 중요” 판매망 등 기반 구축 후 작물 ‘올인’



‘곡성 와사비’의 와사비 장아찌.

양 대표 또한 와사비 잎을 활용한 쌈 채소 판매 및 장아찌 가공을 통해 와사비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및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수경 재배한 와사비 근경도 고수의 작물로 판매하고 있다.

양 대표는 “귀농은 꿈이 아닌 현실”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농사를 짓는 가족농으로 귀농을 시작하게 된



양수정 ‘곡성 와사비’ 대표가 와사비 잎을 활용한 가공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곡성 와사비 제품



곡성에 위치한 양수정 대표의 하우스.

다면 노동력에 대한 인프라를 줄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이어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고,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집합 교육을 통해 작물을 체험하고 재배해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련 기반이 구축된 후

자신감이 생겨야 해당 작물에 올인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너무 성급하게 단시간에 성과를 이루려고 하는 것 보다는 단계별로 천천히 나아가면 내가 하고자 하는 농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이 취재는 전남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서울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남에 위치한 친환경농업단지에서 한 농민이 트랙터를 이용해 논갈이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용자 신청하세요”

개인 1억·법인 5억·유통 10억원 운영·시설자금… 1% 저리 지원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의 2025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 기간을 24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접수 중이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생산·유통,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 저리로 용자 지원한다.

용자 신청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다. 용자 한도

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비·고구마 등 원료 구입, 버섯 종균 구입,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재 제작, 판매장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육묘장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 생산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농업박물관, 전남 농경문화 가치 알린다

쌀 특별전·줄다리기 대회 등 개최 전문성 제고·도민 체험 참여 확대

전남농업박물관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남도 전통 농경 민속을 알리고, 전남 농경문화 가치를 계승·보존하기 위한 이색 전시와 체험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전남 쌀 문화와 줄다리기 등 지역의 전통 민속문화를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릴 ‘글로벌 박물관’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 더욱 주목된다.

전남농업박물관의 ‘2025년 전시·체험 운영계획’에 따르면 박물관은 올해 ‘동아시아 쌀 특별전’을 개최해 전남 쌀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할 계획이다.

특별전은 ‘농도’ 전남이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이지만 쌀 소비량이 급감하며 갈수록 위기에 내몰리는 쌀 산업과 쌀 문화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전남지역을 넘어 쌀 문화권인 ‘동아시아 쌀 문화’를 함께 다루며 글로벌시장에서 전남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시회는 쌀의 기원부터 시대별 농경 생활상, 각종 농경 유물 등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해 소중한 식량 주권이자 삶의

근원인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쌀과 관련된 전통 유산과 의례, 음식 등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색 전시 프로그램으로 농약과 농기구 변천사, 떡살, 쌀 그림 그리기 대회, 쌀 상품 판매전, 청년쌀 요리 경연대회 등도 함께 추진한다.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경 체험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연중 농가월령에 따라 진행되는 농경 체험프로그램은 민속 최대 명절인 설 민속놀이를 시작으로 화전 만들기, 모내기, 전통 벼 베기, 고구마 수확 등 다양한 농경문화와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행사로 치러진다.

선농제 재현과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 등 대규모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남 전통 농경문화도 알린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유산 줄다리기 대회’는 지난 2015년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줄다리기 풍습을 재현하고, 의미를 전승·보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은 드넓은 평야 지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줄다리가 행해진 지역으로 역사·유산적 가치가 매우 높다.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달집태우기 등 다채로운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와 함께 전문 학술 포럼도 개최한다.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지역 민속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달집태우기와 강강술래 등 전남지역 정월대보름 전통 민속과 놀이의 의미와 현대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농경문화 체험 1번지’인 전남 농업박물관의 위상과 전문성 향상 및 도민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실제 박물관은 최근 농경문화관 어린이체험실을 리모델링, 어린이 등 관람객이 농경문화를 체험토록 하고 있다.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모내기와 씨레질(모를 심기 위해 땅을 고르는 작업) 등 농법을 그림으로 익히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연말 그림 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설전시관 3곳을 모두 관람하고 인증하면 ‘씨앗 새싹 연필’을 무료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도민과 함께 다양한 전통 농경문화를 향유할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특히 올해는 박물관 전문성과 역량 기반 확대를 위해 학술포럼과 세계 특별전·대회 등을 함께 추진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오지현 기자